

작품 내용

제 목	내 사랑 파이, 내 사랑 피카
내 용	나는 일곱 살 쌍둥이 자매의 아빠이자, 국립대학 도서관 사서직 공무원이다. 도서관 사서에게 ‘저작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어다. 자료 제공,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고, 그렇기에 낯선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은 사서직 공무원으로서의 업무가 아닌, 아이들의 장난감 ‘디폼블럭’ 도안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저작권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도안에 맞춰 빨강, 노랑, 주황, 분홍 등 알록달록한 블록을 하나씩 집어 들고 있었다. 평소에는 좋아하는 색을 골라서 먼저 하겠다고 소란을 부리거나, 중간에 어렵다고 포기하는 상황도 종종 있었는데 이날은 꽤 열중했다. 그 모습을 보다가 도안 한쪽에 적힌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다. 포켓몬스터의 파이리처럼 보이는 그림 옆에는 ‘내사랑파이’, 피카츄처럼 보이는 그림에는 ‘내사랑피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다른 도안도 비슷했다. 캐치티니핑의 발레핑처럼 보이는 그림은 ‘발레요정’, 소원핑처럼 보이는 그림은 ‘소원요정’이라고 되어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그저 귀엽고 예쁜 도안이었다. “아빠, 이거 파이리 아니야?”라고 묻고, “이건 피카츄잖아.”라고 말하며 맞췄다는 사실에 신이 난 것 같았다. 나도 같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상하게 그 이름들 앞에서 생각이 깊어졌다. 익숙한 캐릭터 이름이 왜 다르게 적혀 있는지 이유를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 순간 ‘저작권’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딱 떠올랐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너희가 열심히 그린 그림을 친구가 가져가서 자기 그림이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라고 물었다. 아이들은 잠깐 생각하더니 “싫어”, “나빠”, “미워”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설명하기가 쉬워졌고, 저작권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알려줄 필요도 없었다.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만든 것을 누군가 마음대로 가져가면 속상하다는 것, 내가 이름 붙이고 좋아하며 애써 만든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것을. 그 순간 아이들의 말이 저작권의 가장 쉬운 정의처럼 들렸다. 법 조항보다 먼저, 저작권은 ‘누군가의 속상함을 막아주는 약속’이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그린 그림은 너희가 생각하고, 손으로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만든 거지? 우리가 아는 파이리, 피카츄 같은 캐릭터도 누군가는 모습을 생각하고, 이름을 붙이고, 이야기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 이름이나 모습은 아무나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없어.”라고 천천히 얘기했다. 고개를 살짝 갸웃하는 걸 보니, 아직 일곱 살 아이들에게는 약간 어려웠을 것 같다. 그래서 “디폼블럭으로 너희가 모습을 만들고 이름까지 붙였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이거 내가 만든 거야’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라고 물었다. 아이들은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바로 가서 되찾아 올 거라고 말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내가 만든 캐릭터, 그림, 노래, 글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 것’, ‘좋아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만든 사람의 마음도 생각해야 하는 것’ 이 바로 저작권이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말해줬다.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중에 한편, 나는 마음속에서 저작권을 곰곰이 생각해봤다. 도서관에서 일하는 나에게 저작권은 아주 친숙했고, 자료를 제공할 때나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홍보물을 만들 때도 항상 빠지지 않았다. 도서관은 지식을 나누는 장소인 동시에 지식과 창작물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존중받도록 안내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만나는 저작권은 다소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졌다.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출처는 어떻게 밝혀야 하는지,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활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하는 일이 떠올랐다. 하지만 디폼블럭 도안 앞에서 만난 저작권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법 조항 이전에 우리 마음의 문제였다. 누군가가 시간을 들여 생각하고, 이름을 붙이고, 세상에 내놓은 것을 어떻게 대할지의 태도였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떠올리며 즐거워하는 마음이 잘못된 아니다. 오히려 그 창작물이 사랑받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나의 어린 시절 또한 순수하게 좋아하는 주인공을 따라 그리고, 이름을 외우고, 친구들과 이야기 하던 추억이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이런 일상은 놀이가 되고, 상상이 되고, 즐거움이 되지만 단지 좋아한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되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그날 아이들에게 설명하면서 나는 저작권은 좋아하는 마음을 막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에 예의를 더하는 것’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많은 콘텐츠를 접했다. 그림책을 읽고, 동요를 듣고, 영상을 보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요즘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태블릿도 사용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앱 속 렌즈 기능으로 이미지를 찾기도 하고, 자판을 톡톡 누르며 “아빠 사랑해” 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한다. 나는 몹시 행복하고 흐뭇하면서도, 아직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쉽고 간단히라도 올바른 활용 방법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 저작권은 저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알아가야 할 습관으로 받아들여졌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저작권을 단순히 그저 하면 안 되는 것으로만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가 만들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 내가 사용해도 되는 걸까, 아니면 직접 만들어볼 수는 없을까란 생각이 먼저 자연스럽게 들길 바란다. 그리고 누군가의 창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동시에 자신이 만든 것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길 기대한다. 직접 만든 토끼 모양 블록, 무지개색으로 그린 고양이 그림, 엉뚱하게 부르는 노랫말에도 저마다의 마음이 들어 있을 테니까. 아이들이 내 설명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의 그림을 함부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마음, 내가 만든 것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소중하다는 마음만 남아 있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잠시 후 아이들은 다시 집중해서 블록을 하나하나 맞추기 시작했고, 작은 손끝에서 형형색색 블록들이 자리를 찾아가더니 어느새 작품이 완성됐다. 도안 속 이름은 ‘내사랑파이’, ‘내사랑피카’ 였지만, 덕분에 아이들이 ‘저작권’ 이라는 단어를 알게 된 귀중한 하루였다.